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

서문숙* · 김명희** · 전미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간호교육은 미래의 간호사에게 전문 지식을 갖게하고 미숙했던 사고력을 숙달시키고 기술을 몸에 지니게 하고 기존의 관을 새로운 관으로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간호대상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이다(김, 1995). 그런데 간호교육은 지식의 실제 적용 없이는 의미가 없으므로, 임상경험이 전문직 교육의 심장부로 불리울 정도로 간호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이다(MaCabe, 1985 ; Monahan, 1991).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서의 임상교육의 주된 목적은 이미 배운 지식을 학생들로 하여금 환자를 돌보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준비시키고,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행동방향을 터득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건강관리 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Elrich, 1967).

1970년대 이후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연구논문(김, 1975 ; 김, 1973 ; 김, 1982 ; 김, 1992)을 살

펴보면 임상실습에 있어서 임상실습지도 결여, 이론과 실무의 격차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오면서도 불구하고 임상실습 교육 자체에는 별 변화가 없이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인식하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관점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와 김, 1994).

임상실습시 실제로 겪은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효과적 실습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론에서 도출한 가설들을 검증하는 계량적 연구보다는 실제적인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이라 생각되어 정성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어

*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떻게 경험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더 나아가 이들의 경험에서 근거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더욱 더 바람직한 실습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바는 무엇인가?

II. 문헌고찰

임상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10년 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임상교육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1975)의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방법 및 지도내용에 대한 불만이 7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의 실습량이 과다하다가 47%, 반응이 적은 환자와의 대화가 어렵다가 45%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에서 간호사, 의사, 환자와의 관계는 원만히 유지하고 있다가 43%로 나타났다.

조(1977)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지도에 대한 불만여부를 조사한 결과 84.7%에서 불만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불만의 이유를 교수의 좀 더 치밀한 임상실습지도 결여, 수간호사의 관심과 책임지도 결여, 쌍방의 합의된 지도결여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1978)는 150명의 간호전문대 졸업반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태도조사'에서 간호학습의 만족도가 30%이고, 불만족도가 70%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전문직업인으로 일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34.7%인 반면 50%는 종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 간호학생들이 받고 있는 임상실습은 교육목적과의 부합성에 대해 86.7%가 부정적으로 보고하였으며 임상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1978)은 간호학생들이 이론과 실제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임상실습에서는 실습환경, 내용, 계획, 평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1979)은 임상실습 교육의 문제점으로 간호철학 및 이념의 빈곤, 이론과 실무의 격차,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점, 바람직한 간호를 수행하려는 의욕의 상실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간호 학생들이 이와 같은 실습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간호학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Carter(1982)는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 그 자체에서도 심한 스트레스, 불안정, 불만족을 경험하지만 특히 간호대상자인 아픈 사람과 가까이 있으므로 더욱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오(1984)의 연구에서는 실습전 불안감이 46.0%, 실습후 불안감은 53.6%로 임상실습 후의 불안이 높게 나타나 기대에 어긋나는 실습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전(1984)은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조사에서 실습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요인은 "실습시 주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만 반복되는 경우"라고 지적하였다. 정(1984)은 강의내용과 임상실습지의 상황과는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김(1991)은 간호이론이 실제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론과 실제의 병행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1993)은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연구에서 Q방법론을 적용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를 원만한 적응형,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 현실적 직업 추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실습지도 내용에 있어서 유형별 접근방법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형 1인 원만한 적응형은 환자 간호에 있어서 심리적인 지지 등 정서적인 면에 좀 더 비중을 두어 교육하고 간호기술과 지식 등도 함께 추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하였고, 유형 2

인 나이팅게일 봉사형은 간호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므로 기본 간호술 등 정확하고 숙련된 기술의 습득과 함께 환자의 간호와 교육에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의 추구에 더 비중을 두고 지도를 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 유형 3인 현실적인 직업추구형은 필요에 의해 선택한 실리적인 목표추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상적이고 봉사적인 측면 즉 간호윤리와 철학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어 지도하고 복잡한 여러 상황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학생 스스로의 내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종교적인 면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와 김(1994)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긴장”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 “피로” “실망과 회의” 및 “성취감”의 여섯범주를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적합한 실습장 선정 및 배경문제, 임상실습장에서의 적응을 돕는 문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간호전문직 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임상실습 내용을 조직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문제, 이론과 실제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문제, 교수 이외에 간호사의 임상 교육에의 능동적인 개입 문제 등에 관한 학교와 병원 간에 더욱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이 요청되었으며, 이 두 기관의 상호협력 없이는 필요한 임상교육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임상실습교육은 전문직 간호사를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의 주체가 간호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실습경험을 다루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바람직한 실습경험을 제공하기위한 중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1. 철학적 배경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를 철학적 배경으로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Mead는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육체적 자아와 분리된 심리적 자아의 개념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상징을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보았다.

Blumer(1969)는 인간이 대상의 고유한 가치에 기초해서 대상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그에게 갖는 의미에 기초해서 반응한다고 덧붙임으로서 상징적 상호작용의 의미를 확장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의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밝힐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의미는 사물의 내재적인 구성 요인으로부터 나오거나 인간 내부의 심리적 요인들의 결합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섭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사물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관련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가로부터 나온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은 의미를 사회적인 사물로 보며, 사람들이 서로 교섭하는 과정에서 사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활동을 함으로서 사물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의미의 해석과정은 두가지 단계를 밟는데, 첫째,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지향하는 사물을 자기 자신에게 지시하고 둘째, 행위자는 그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자신의 행위가 나아갈 방향에 비추어보아 의미를 선택하고, 검사하고 유보시키고, 재편성하며, 변형시킨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이른바 “뿌리가 되는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미지들은 인간집단이나 사회, 사회적 교섭, 대상, 행위자로서의 인간, 인간행동의 상호연관 등 본질을 묘사하며 연구와 분석의 틀을 형성한

다. 다시말해 인간집단과 사회는 행동속에 존재하며 행동과 관련해 인식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를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인간사회를 경험적으로 다루고 분석하려는 모든 이론의 출발점이며 귀착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하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더 나아가 이들의 경험에서 의미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자 질적연구의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은 1년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반 학생으로, 3년제 전문대학생 7명과 4년제 간호학과 학생 3명이었으며, 심층적 면담을 통하여 근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자들이 수차례에 걸친 심층면담을 통하여 더 이상 새로운 범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때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대상자가 편한 시간을 택하여 학교내의 연구실에서 실시하였고,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2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학생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비구조적인 면담을 사용하였고 면담의 주 내용은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것이었다. 대상자의 양해 하에 면담시 대상자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면담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면담 당일에 정리하였고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위하여 재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3인이 자료수집과 동시에 공동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3명을 만난 후 임상실습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론적 민감도를 가지고 다음 자료수집에 임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수집당일에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분석 결과에서 다음에 수집할 자료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자료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 동안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을 하였다. 분석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0)의 분석법을 사용하여 연구자 3인이 분석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1인 및 박사과정생 6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Leininger는 “질적연구에서 타당도는 연구되고 있는 특정 현상의 진정한 본질, 의미, 특징을 이해하고 지식을 얻는 일로 측정이 아니라 현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라 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coding하여 개념에 대해 대상자에게 질문하고 비교하여 범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결과를 재확인시켰으며 자료분석시 박사과정생 6인, 간호학 교수 1인 등 전문인의 자문을 구해 상호일치도를 높였다.

IV. 연구결과

1.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개념 및 범주

A.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개념

10명의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근거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나온 개념은 수간호사 역할, 일반간호사 역할, 실습여건 부족, 텃세, 인력 수급화, 교육의 차별, 안 배우고 나감, 자신의 노력 부족, 실습지도 결여, 화, 실망감, 소외감, 두려움, 당혹감, 갈등, 능동적 태도, 수동적 태도,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이론과 실무의 차이, 자부심, 성취감, 보람, 지식습득, 인간관계 학습, 개선의지, 체념, 답습 등 총 28개의 개념들이었다.

각 개념들에 대한 근거자료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간호사 역할

“수간호사들이 orientation시 병명 정도만 이야기 해주고 원인, 진단 이야기는 안해주고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수간호사가 간호사를 인격모독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간호사가 우리 학생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인격모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뎐 그 병에 대해 물으려면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 하고...”

“수간호사는 교육하는 자리인데 질문을 못하게 하며 자라나는 새싹의 호기심을 잘라버리죠.”

“○○ 병원에서는 소아과 수선생님이 check list를 줘요. 그 목록 보고 실습에 임하면 이것을 해야하는구나, 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2) 일반간호사 역할

“간호사의 나태한 모습, 간호이론과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잘 볼 수 없는 것, 간호사들이 환자의 privacy를 생각지 않고 간호시행을 하는 것도 실망스러워요.”

“무균법을 제대로 안하는 간호사의 모습...”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판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뭐든지 의사들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간호사 영역에서 해 주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간호사들이 혈압질때 빨리빨리 할 것을 요구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알코올 솜 하나의 경우에도 떨어져도 어떤 간호사는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쉬운 것은 간호사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간호사도 저의 model이 되었으면 해요. 무균술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간호사들이 너무 무식한거 같아요. 학생들에게 신경도 안써주고, 별로 배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routine하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학교

에서 배우는 care를 하는 건 거의 못봐요. Role model이 없어요”

“간호사들에게 배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어봐도 피상적인 것만 답해주고...”

“간호사들도 우리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order 대로만 시행하는 육체노동자 같이 보여요.

신졸들은 잘 가르쳐줘요.”

“간호사가 저는 좋은 직업으로 보였거든요. 말그대로 천사, 사랑, 이런 이미지가 좋았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힘들구요, 이런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3) 실습여건 부족

“좀 더 많은 실습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전문병원, 정형외과 전문병원 등에서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본적 간호행위만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만실 실습시 case 보기가 너무 어렵고...”

“실습지 교수 수가 부족하고 책임 맡아보는 교수가 없어요.”

“학교에 병동마다 실습해야 할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실습지침서를 학교에서 내주고, 미리가서 실습해야 하는데, 실습하다보면 안보고 가게되요. 그래서 실습이 비효율적이기도 해요.”

“병원에서 ward schedule에 맞춰서 저희들에게도 그날 하루동안 해야할 것, 봐야할 것에 대한 assign이 자세히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질병같은거 얻는 것에대한 방어를 확실히 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간염이나 결핵같은거요. 특히 호흡기 질환은 심각한거 같아요”

4) 텃세

“병원의 간호사들이 학교가 서로 다른데에 따라 분열되어 있어요. 우리학교 졸업생들이 미우면 학생들까지 같이 넘어가는거조 뭐.”

“선배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선배들이 저희학교 동문회를 만들어, 조직을 만

들어 저희에게 힘을 주었으면 해요. 텃세라는게 있잖아요.”

“누구라도 능력있으면 텃세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 애들만 쑥 데려가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 출신인가봐요.”

5) 인력 수급화

“배우는 실습생인지, 인력수급인지 화가나요. 내돈 들여서 실습사왔는데 조무사 대신의 인력수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의 실습은 간호조무사 역할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하루종일 vital sign, 때로는 간호사 심부름도 하고요. 조무사가 없을 때 임상검사실에 심부름도 가니까요.”

“Vital sign이 학생의 job으로 되어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떤 병동은 학생에게 심부름만 시키고...

맨날 vital하고 잡일하러 왔다갔다 하느라 하루해가 다 갔던거 같은데...”

6) 교육의 차별

“갈등이 되는 것은, 3년제와 4년제 차이가 병원에서 대접하는 것이 다르고, teaching 하는 내용이 달라요.

학과생들은 식사시간이 되면 병실에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식당에 가는데, 우리들은 가라고 해야지만 가고 바빠서 사정이 안되면 못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죠.”

7) 안 배우고 나갈

“다 배우지 않고 나가서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상실습 내용에 대해 배우고 나갔으면 합니다.”

“실습과 수업이 연결이 안된다는거요. 먼저 그 part를 확실히 배우고나서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간호관리 실습시 이론을 안배우고 나갔거든요.”

8) 자신의 노력 부족

“학생들의 노력이 점점 부족해져요.

문제를 끝까지 집에까지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저희들은 모든 것을 쉽게하거든요. 무언가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예요.”

9) 실습지도 결여

“병원, 환자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루는 교수보다 임상적으로 실제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수가 있었으면 해요.”

“사실 실습지에서 저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건지 뭘 알아야 하는건지 모르기 때문에 실습지에서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서 미리 진행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10) 화

“무균법을 제대로 안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 문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저 자신에 대해 화가나요.”

“의료원 실습시 vital 재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나요. 배우는 학생인지 인력수급인지 화가나요.”

“실습때 익숙한 모습이 본인의 앞으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 화가나요.”

11) 실망감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간호사의 나태한 모습에 실망스러워요.”

12) 소외감

“간호사의 눈치를 보게되는 것이 마음에 안들어요. 간혹 할일이 없을때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그런것 모두가 눈치가 보여요.

뛰다는 보릿자루 같이 밧적어져요.”

“사실 모르는거 그때그때 빨리 찾아봐야 이해도 잘되고 기억에도 잘 남는데 병원에서 책보려면 괜히 노는거 같고 책 볼 곳도 적당치 않고 간호사들 눈치가 많이 보여요.”

13) 두려움

“환자 대하기가 두려워요. 제가 뭘 모르니까...”

“환자와의 이야기하는 skill이 부족해서 환자접 하기가 꺼려져요.”

14) 당혹감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자가 물어볼 때 많이 당혹스럽고 어쩔줄 모르겠고...”

15) 갈등

“갈등이 되는 것은, 3년제와 4년제 차이가 병원 에서 대처하는 것이 다르고...”

16) 능동적 태도

“과제물을 많이 내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뭐든지 물어보고 직접해보고, 배우는 거요.”

“학생들이 실습하면서 배우게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본인에게 있다고 봐요.”

“내가 조금만 이겨내고, 열의가 있고 한다면 잘 했을텐데... 자기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17) 수동적 태도

“적극성이 없고 능동적이지 아니예요.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것은 잘하는데, 시키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려 해요.”

18) 육체적 피로

“집에 가면 피곤하다는 말 참 많이 하거든요. All vital 하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보는 것 없이 지치고 집에 와서 공부 안되고...”

“○○에서는 뭐든지 뛰어 다녀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이리저리 심부름하다보면 피곤하잖아요.”

“사실 그냥 vital 하고 IM하고 간호사 쫓아다니 거나, 시키는 일 하다보면 너무 피로해요.”

“사실 실습 8시간 내내 서있는게 너무 힘들어요. 거의 전혀 앉을 수도 없고 서 있잖아요.”

19) 정신적 피로

“간호사 선생님 하나하나 눈치보는게 스트레스

잖아요.”

“실습 바뀌는 첫주는 눈치보느라고 더 피로하고요.”

“아침 일찍 가야한다는 스트레스, 실습 report에 치여서 일주일 내내 피곤해요.”

20) 이론과 실무의 차이

“이론과 실체가 다른 것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실습이 배운것과 너무 틀리구요, 적용하기도 사실 어렵구요.”

“책에서는 환자위주의 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실체는 이것이 어렵구,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 배운것과 임상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우선은 실습과 이론사이에 gap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요.”

21) 자부심

“사명감이 부여되면 일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직업이 있는데 만족감과 확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22) 성취감

“실습시 injection, IV를 간호사가 시킬때 뿌듯해요. 내가 이런 것을 할 줄 아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23) 보람

“실제로 접하니깐,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람도 있고요.”

“어렵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일이니깐요...”

24) 지식습득

“실습을 하고나면 환자의 문제점이 다가오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알겠고, 공부하기가 수월해지죠. 적용능력도 생기구요.”

“이론만 배우는 것 보다는 실제로 와 다았어요.”

25) 인간관계 학습

“사람 성격 파악도 배우게 되구요. 이사람 저사

람 만나고 접하게 되니까, 사람 유형을 알겠더라
구요. 실습을 통해, 사람 대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환자분들과 얘기하는 기술은 많
이 는거 같아요.”

“참는것도 많이 배우고요. 대상자가 환자니까
저희가 돌보아야 되는 입장에서 참아야 된다는 거
지요.”

26) 개선의지

“뭐든지 물어보고 직접해보고, 배우는 거요. 환
자를 직접 만나서 신체 뿐아니라 심리간호 같은
것도 제공해보려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다음에 그러지 않으려면요.”

“Order에 의한 것보다 창의력 있게, 적용을 하고,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텃세도 필요없어요.”

“나는 다르게 하겠다는 것 말이지요.”

“간호사들도 정말 똑똑해지고 당당했으면 좋겠
어요.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7) 체념

“그냥, 간호사가되면 저렇구나 하고 느낄 뿐이
죠.”

“제가 간호사가 되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잘 안지
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되지만...”

28) 답습

“무균법을 제대로 안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닮아
가는 것 같아 문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저 자신
에 대해 화가나요.”

B. 개념의 범주화

이상의 28가지 개념을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상
위 개념으로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역
할 모델에 대한 요구, 비교육적 실습환경, 지식
부족, 정서 상태의 변화, 실습태도, 피로감, 회의,
궁지, 실습산물 등 9가지로 다음과 같이 각 개념
들을 범주화 시켰다.

2. 근거 이론적 모형

A. 근거이론 Paradigm Model에 따른 범주

분석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Paradigm model인 상
황, 맥락, 중재 상황, 전략, 결과 등을 사용하여
축을 만들어 연결시키는 연결 부호화를 하였고 범
주의 속성과 차원은 전개 부호화 과정 중에 가능

<표 1> 개념의 범주화

개 념 의 종 류	범 주
수간호사 역할, 일반간호사 역할	역할 모델에 대한 요구
실습 여건 부족, 텃세, 인력 수급화, 교육의 차별	비교육적 실습환경
안 배우고 나감, 자신의 노력 부족, 실습지도 결여	지식 부족
화, 실망감, 소외감, 두려움, 당혹감, 갈등	정서상태의 변화
능동적 태도, 수동적 태도	실습태도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피로감
실무와 이론의 차이	회의
자부심, 성취감, 보람	궁지
지식 습득, 인간관계 학습, 개선의지, 체념, 답습	실습 산물

<표 2> 근거이론 Paradigm Model

Causal Condition(조건) → Phenomenon(현상) → Context(맥락) → Intervening Condition(중재조건)
→ Strategies(전략) (Action / Interaction) → Consequence (결과)

한한 확인하려고 하였다. 속성(property)이란 범주의 특성이며 차원(dimension)은 연속선상에서 속성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속성이 확인되는 동안에 차원도 함께 검토하였다. 근거이론 틀에 의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역할 모델에 대한 요구

역할 모델에 대한 요구는 실습을 하는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 요구 중의 하나로써, 크게는 수간호사의 역할과 일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였다.

역할모델에 대한 요구는 임상실습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현상이었고, 요구는 간호사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형태였다.

학생들은 간호사의 역할모델 부재시 가장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가) 수간호사 역할

수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속성으로서는 지식, 학생교육, 수간호사 자질 등이었다.

나) 일반간호사 역할

일반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속성으로서는 지식, 올바른 간호기술 수행, 학생교육, 간호의 독자성, 간호 윤리적 측면, 좋은 간호사상 등이었다. 일반 간호사의 역할모델 부재는 이차적으로 간호 학생에게 화, 실망 등의 정서상태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일반간호사의 당당한 전문 간호수행은 간호 학생에게 간호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였다.

2) 비교육적 실습환경

실습환경에 대한 인지는 실습여건 부족, 텃세, 인력 수급화, 교육의 차별을 포함하였다. 실습환경이 전반적으로 '비교육적 실습환경'의 형태로 나타났다.

가) 실습여건 부족

실습여건 부족은 학교측 요인과 병원측 요인이 존재하였다. 학교측 요인으로는 실습 교수요원 부족, 실습관련 자료 부족, 교과과정의 부적절한 연계성 등이 있었으며, 병원측 요인으로는 다양한

실습 경험의 부족, 병원 감염에 대한 노출 등이 있었다.

나) 텃세

간호학생들은 실습환경에서 텃세를 인지하였으며, 이런 텃세의 인지가 비교육적 환경과 연관되었다. 텃세의 현상을 유발하는 속성으로는 주로 학연이었으며, 간호학생들은 병원에 선배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지지를 얻는다고 하였다.

다) 인력 수급화

간호학생 역할 이외의 역할과 반복적인 단순 간호업무에 치중시 학생들은 인력 수급화라 느꼈다. 인력 수급화라고 인지할 때, 학생들은 실습학생으로서의 역할 모호성을 경험하였으며, 이차적으로 화가 난다고 표현하였다.

라) 교육의 차별

간호학생들은 실습환경에서 교육의 차별을 인지하였다. 교육 차별의 속성은 3년제 전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 간의 교육내용의 차이였다. 이는 주로 3년제 전문대학생이 인지하는 속성이었다. 교육의 차별은 학생에게 갈등을 초래하였다.

3) 지식부족

간호학생들은 실습지에서 주로 지식부족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주원인으로는 안 배우고 나가는 것, 자신의 노력 부족, 실습 지도의 결여로 나타났다.

지식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감 결여와 환자 간호에 있어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4) 정서상태의 변화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경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간호사 역할모델 부족, 학생의 인력 수급화, 비교육적 실습환경 등으로 인하여 화, 실망감, 소외감, 두려움, 당혹감, 갈등 등의 정서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런 정서상태의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5) 실습 태도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태도는 능동적인 태도 양상과 수동적인 태도 양상을 보였다.

6) 피로감

학생들은 실습 경험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경험하였다. 실습지가 바뀔때 적응상의 문제로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었다.

7) 회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실습지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는 이론과 실무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학생에게 간호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야기시켰다.

8) 긍지

긍지의 속성으로는 자부심, 성취감, 보람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속성은 실습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에게서 보여졌다. 이런 간호에 대한 긍지를 갖는 학생은 부적절한 간호수행에 대해 개선의지를 보였다.

9) 실습 산물

결과적으로 간호학생의 실습경험은 지식습득, 인간관계 학습, 개선의지 등의 긍정적 측면의 산물이 생겼고, 체념, 답습 등 부정적 측면의 결과를 낳았다.

이상에서 임상 실습 학생의 경험에 관한 핵심 범주는 <간호관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

상실습 학생은 실습지에서 역할 모델에 대한 요구, 비교육적 실습 환경, 지식에 대한 요구를 갖으나,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시 정서상태의 부정적 변화, 실습태도의 변화, 피로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이 간호 학생의 실습에 대한 긍지와 회의로 발전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간호관이 형성된다.

B. 명제 진술

근거자료에서 범주간의 관계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지막 부호화 과정에서는 이론의 구성을 돕기 위해 범주간의 관계진술을 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할 만한 진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본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나타난 범주간의 관계를 통해 다음 몇 가지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1) 간호 현장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은 학생이 갖는 간호의 긍지를 높일 것이다.
- 2) 비교육적 실습환경은 간호학생이 갖는 간호의 회의를 증가시킬 것이다.
- 3) 지식 부족은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긍지는 긍정적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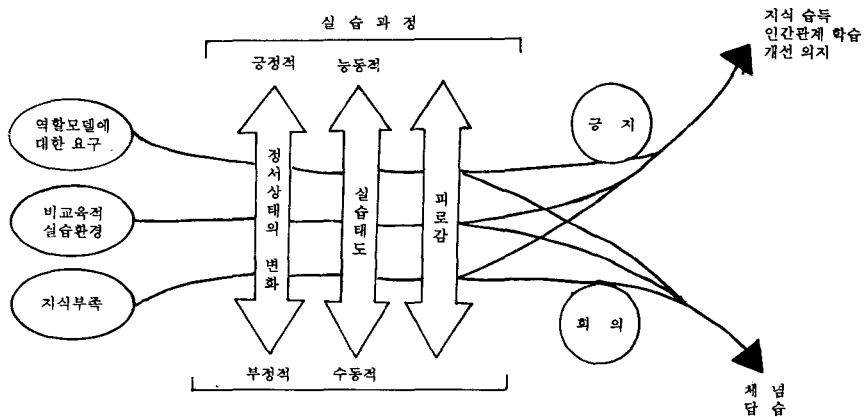


그림 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호관을 형성할 것이다.

- 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회의는 부정적 간호관을 형성할 것이다.

C. 도해

나타난 개념과 범주간의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하기 위하여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과정을 도해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V. 논 의

본 연구결과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28개의 개념은 역할모델에 대한 요구, 비교육적 실습환경, 지식부족, 정서상태의 변화, 실습태도, 피로감, 회의, 궁지, 실습산물 등 9가지로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이 주로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여년간 선행연구(김, 1975; 김, 1979; 김, 1991; 박, 1978; 오, 1984; 이, 1978; 정, 1984; 조, 1977)에서 지적되어온 임상실습의 문제점과 거의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개념간의 관계를 통해 도출된 명제를 이와같은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실습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간호사, 임상지도자 등이 간호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으며, 교육적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 병원 행정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의 지식 부족은 '안 배우고 나감'이 주원인이었으므로, 이론 교육의 시기를 감안한 학생실습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으로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긍정적 간호관을 형성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실제이론을 개발하여 간호실무에 기여하고자 정성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년제 간호학생 10명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심층적 면담을 통하여 근거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시간은 40분에서 2시간이었다.

연구기간은 1995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서 나타난 핵심범주는 <간호관 형성 과정>으로서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범주는 역할 모델에 대한 요구, 비교육적 실습 환경, 지식 부족, 정서 상태의 변화, 실습 태도, 피로감, 회의, 궁지, 실습산물 등이었다.

본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개념간의 관계를 통해 다음 몇가지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1) 간호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은 학생이 갖는 간호의 긍지를 높일 것이다.
- 2) 비교육적 실습환경은 간호학생이 갖는 간호의 회의를 증가시킬 것이다.
- 3) 지식 부족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긍지는 긍정적 간호관을 형성할 것이다.
- 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회의는 부정적 간호관을 형성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볼 때 간호학생들은 수간호와 일반간호사의 역할모델 부재, 비교육적 실습환경, 자신의 지식부족으로 인해서 실망감, 화, 소외감, 두려움, 당혹감, 갈등 등의 정서상태의 변화,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로감과 능동적 혹은 수동적 실습 태도를 경험한다.

따라서 임상실습 학생들의 실습경험을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올바른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고성희, 김기미(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1.
- 김광주(1975). 간호교육 및 업무의 실제와 문제점. 대한간호, 14(5), 51-58.
- 김문실(1995).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간호학 교수의 실무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 5-16.
- 김소야자(1973). 정신과 간호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3(3), 15-26.
- 김수지(1979). 임상간호 교육과정. 경희간호연구지, 3(78).
- 김영숙(1975).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 중앙의학, 28(5), 549-554.
- 김주희(1982).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대한간호, 21(1), 45-57.
- 김혜숙(199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평가와 측정 에 관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간호학회지, 22(1), 42-48.
- 박송자(1993).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 Q 방법론 적용. 간호학회지, 23(4), 544-554.
- 박오장(1978).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 월간간호, 2(6), 124.
- 오순애(1984).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 중앙의학, 46(2), 125-131.
- 이기숙(1978). 서울시내 간호전문학교 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태도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화연(1984).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순(1977).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대한간호, 16(6), 56-70.
- Blumer, H.(1969). Symbolic interactionism : perspectives and method. Englewood cliff, NJ : Prentice-Hall.
- Carter, E. W.(1982). Stress in nursing students, dispelling some of the myth. Nursing Outlook, 30(4), 248-252.
- Elrich, H.(1967). The clinical education of the medical student.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42.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MaCabe, B. W.(1985).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in the clinical area.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4(6), 255-257.
- Monahan, R. S.(1991). Potential outcomes of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4), 176-181.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

Abstract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Suh, Moon Sook*·Kim, Myoung Hee**
Chon, Mi Young**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to explain how nursing students experience in the clinical nursing practice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Ten nursing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Seven of them were junior students at the junior college of nursing, and the rest were the senior students at the university.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by investigators during May and June in 1995.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Twenty-eight concepts and 9 categories were emerged by the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The 9 categories include 'the need of role model', 'non-educational practical

setting', 'knowledge deficit', 'emotional changes', 'the attitudes of clinical practice', 'fatigue', 'skepticism', 'pride', and 'the product of clinical practice'. The core category which encompasses all 9 categories was emerged as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nursing view'.

Five hypothese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 1) The desirable role model would enhance to pride of nursing in students.
- 2) Non-educational practical setting would increase skepticism of nursing in students.
- 3) Knowledge deficit would negatively affect on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4) The pride of clinical practice would formulate a positive nursing view.
- 5) The skepticism of clinical practice would formulate a negative nursing 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use as basic data for students attending clinical experience.

Key concept : clinical nursing practice,
grounded theory

* Dept. of Nursing, Chinju Junior College Nursing & Health

** Doctoral candidate, Dep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